HEALING ANDONG

안동

즐거운 안동 힐링 여행

Contents

01: City of Healing

즐거운 안동 여행 키워드 4

10 춘하추동, 계절별 목적지
11 안동의 인스타그램 명소
12 문화 속 안동, 안동 속 문화
13 한옥 고택

02: Walk

안동에서 걷다

안동 트레킹 루트 4

16 퇴계오솔길
20 하회마을길
28 선성현길
32 월영교 산책길

안동 마을 산책

36 예끼마을
38 태사길
40 지례예술촌
42 안동포마을

안동 힐링 스팟 01

43 향기로운 차 한 잔의 휴식

03: Rest

안동에서 쉬다

고택 체험

46 구름에 리조트
47 락고재 안동
48 치암고택
49 수애당
50 정재종택

안동 힐링 스팟 02

51 힐링 기념품 쇼핑하기

04: Culture

안동을 느끼다

문화 유산 체험

54 도산서원
56 병산서원
58 봉정사
60 만휴정

안동 힐링 스팟 03

61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전시관

General Information

안동 여행 정보

62 안동의 지형
안동 대표 맛집
계절 따라 축제 따라
안동 카페와 펍
안동의 숙소

65 안동 언택트 힐링 여행지 20선
67 안동 스탬프 투어
로열 웨이

즐거운
안동 힐링 여행

INTRO

안동은 낙동강의 흐름처럼 유유하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강변의 백사장 위 겹겹이 이어지는 단애의 풍경은 그대로 한 폭의 산수화입니다. 수백 년을 버틴 고택 앞에서 '지나간 시대'란 존재하지 않았고, 오래된 집을 아끼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할 정도의 여유가 느껴지는 도심의 공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느긋한 리듬은 도시 전체가 품고 있는 묵묵하고 점잖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안동의 사람, 안동의 골목, 안동의 자연 속에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요란함 대신 편안하고 깊은 품위가 있습니다. 안동이 도시 청년들의 귀촌과 '한 달 살기'의 목적지로 각광받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HEALING

결국 안동 여행의 매력은 '힐링'으로 이어집니다. 건물부터 제례까지 삶의 방식을 통틀어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마을이 있고, 한국 역사에 손꼽히는 사상가의 고향인 한편, 한옥 고택들이 건강하게 보존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산과 계곡으로 가득한 내륙 지역이지만 '물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와 강을 품습니다. 구비구비 산과 계곡을 따라 발길을 옮기다보면 고즈넉한 카페와 맛있는 식당들이 방문을 기다립니다.

ANDONG

안동 힐링 여행은 하나의 순환처럼 이어집니다. 고택으로 향하는 길은 트레킹 코스로 발길을 인도하고, 트레킹 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술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구도심의 아름다운 산책로는 한옥 카페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안동의 오래되고도 새로운 매력은 휴식 같은 여정,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둘러보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여행, 안동의 힐링 로드가 지금 시작됩니다.

City of Healing

자연과 문화 유산을 따라 걷는 길,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고단했던 마음도 치유된다. 고즈넉한 마을 풍경을 따라 타박타박 걷다가, 수백 년 된 고택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쉬어본다. 옛 것과 새 것이 어우러지는 힐링의 도시 안동, 어떤 시선으로 즐기면 좋을까? 안동 힐링 여행의 키워드 네 개와 추천 스팟들.

01 즐거운 안동 여행 키워드 4

HEALING ANDONG

1

춘하추동, 계절별 목적지

Travel S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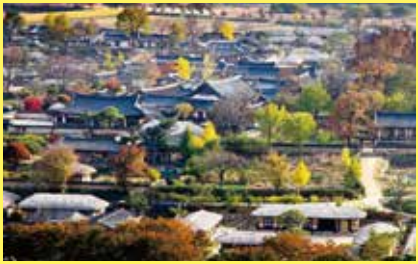
낙동강과 청량산,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름 높은 지역인만큼 안동의 표정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꽃 피는 봄부터 눈 내리는 겨울까지, 그 계절에 놓치면 안 되는 안동의 명소는 어디일까?

01 봄 | 월영교 ➡ 32p

월영교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봄이다. 안동댐 보조호수의 좌안과 우안에는 벚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 4월 거울같은 호수 위로 만개하는 벚꽃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4월 한 달 동안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플리마켓 월영장터가 매주 열리기도 한다.

02 여름 | 병산서원 ➡ 56p

배롱나무는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인만큼 서원에 많이 심었던 나무다. 병산서원 경내에서도 배롱나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배롱나무의 붉은 꽃이 가득 피어나고 낙동강 위 병산이 한층 푸르러지는 여름이야말로 병산서원이 가장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시기다.



03 가을 | 하회마을 ➡ 20p

가을이 깊어갈수록 하회마을은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마을 곳곳 풍경을 채색하는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덕에 낮은 담장과 끝없이 이어지는 초가지붕은 평소와 또 다른 느낌을 준다.

04 겨울 | 암산유원지 ➡ 63p

겨울 안동의 암산유원지에서는 얼음 축제가 열린다. 축제가 이어지는 9일 간 썰매타기, 팽이치기, 빙어낚시, 송어잡이와 순백의 얼음 빙벽, 얼음 조각들이 꽁꽁 얼어붙은 유원지에서 활기찬 풍경으로 함께 한다.

2

안동의 인스타그램 명소

Photo Spot

이제 SNS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안동 여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스타그램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드넓은 호수가 보이는 창가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고택부터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던 명소까지, 이곳에서라면 당신도 인스타그램 스타!

01: 태사길 ➡ 38p

태사길은 최근 안동의 '힙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도심 뒷골목이다. 낮은 담장을 경계로 사이좋게 맞닿아 있는 생활 한옥들에 젊은 감각의 카페와 식당들이 하나 둘 들어서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골목길을 느긋하게 돌아보다가, 태사길을 대표하는 '카페 볕'에서 한옥과 양옥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해보자.

카페볕 안동시 태사2길 92

02: 만휴정 ➡ 60p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요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전까지, 만휴정은 웅장한 계곡에 조용하게 자리해 있던 정자였다. 이제 안동 여행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지만, 정자의 고즈넉한 풍치는 변함 없다. 폭포와 정자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긴 후 SNS에 올려보자.

03: 지례예술촌 ➡ 40p

지례예술촌은 아티스트들의 레지던시 기능을 하는 한옥 마을이자 고택 숙박이 가능한 곳이다. 드넓은 임하호가 내다보이는 한옥스테이 객실의 창문은 투숙객들이 유독 사랑하는 스팟이다. 햇빛 쏟아지는 오후 창 밖 풍경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보자.

3

문화 속 안동, 안동 속 문화

Culture Spot

안동은 유무형으로 남은 한국 대표 문화 유산들의 고장이다. 수려한 자연과 잘 보존된 고택도 많지만 예술의 정취에 보다 깊이 젖고 싶다면 아래 장소들에 주목해보자.

01: 예끼마을 ➡ 36p

'예끼마을'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예안마을 주민들이 이주한 도산면 서부리의 별칭이다. 이곳만의 특별한 역사와 이야기, 예술로 마을을 살려보자는데 민관의 뜻이 모아지면서 예술가들이 모이고 마을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지기 시작했다. 선성현 문화단지의 개발과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예술마을로 탈바꿈했다.

02: 이육사문학관 ➡ 61p

안동 북서쪽 도산면은 안동이 배출한 위대한 문인들과 연관 깊다.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 뿐 아니라 민족시인 이육사의 고향이기도 했다. 이육사문학관에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의 작품들을 둘러본 후 인근 이육사 청포도 와이너리에서 포도주 한 잔을 즐겨보자.

03: 하회별신굿 탈놀이 ➡ 23p

'하회탈춤'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고려시대 이미 시작되었다. 안동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 풍산 류씨가 하회에 정착한 후에도 영세농민층의 탈놀이를 중단시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전통이다. 한때 놀이인 동시에 신성한 의식이었던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재들 가운데 하나로 정기적으로 상설공연이 개최되고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에서 공연을 진행하니 하회마을 방문 일정을 여기에 맞추는 것을 추천한다. **공연 일정** 3~5월 매일 오후2시 / 6월 매주 화~일 오후 2시 / 7월~12월 수, 금, 토, 일 오후2시

4

한옥 고택

Traditional

안동은 잘 보존된 고택들로 가득한 곳이다. 안동 한옥의 특별함은 오래된 문화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동에서 한옥은 아직도 사람들 삶의 일부다. 한국 건축의 진가를 느끼며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스팟 세 곳.

01: 구름에 리조트 ➡ 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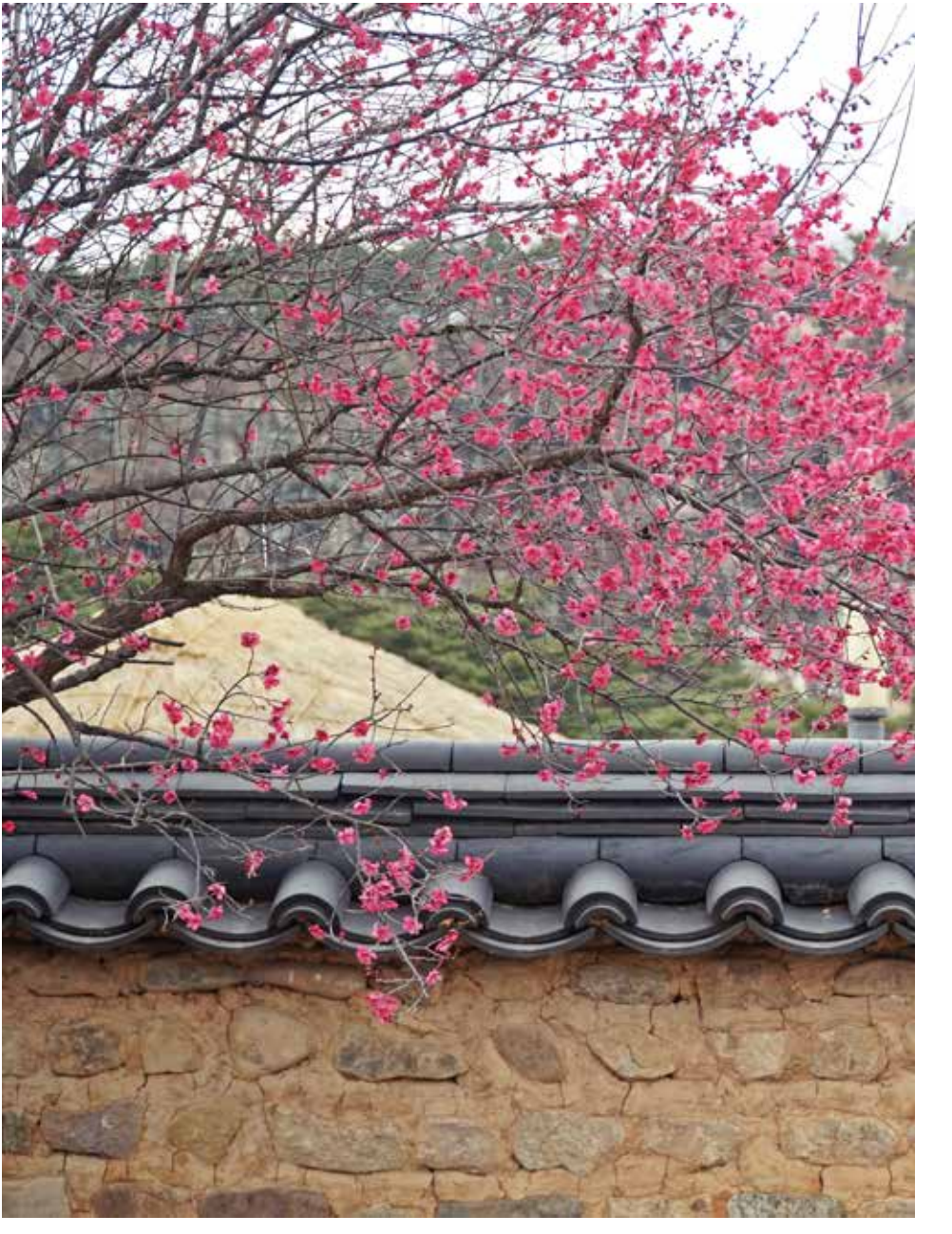
안동댐 건설로 수몰될 뻔 했던 한옥 고택들을 세심하게 옮기고 복원해 만든 리조트. 특급호텔 급의 서비스와 함께, 옛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한옥에 머물러보는 드문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안동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02: 정재종택 ➡ 50p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정재 선생의 집 정재종택의 고택스테이에서는 생활 공간으로서 한옥의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단지 건축물만이 아니다. 종부가 직접 요리한 아침상에서는 옛 반가 음식의 원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03: 봉정사 ➡ 58p

한국 고건축을 말할 때 봉정사를 빼놓을 수 없다. 봉정사 극락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며 국보 제 15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선 전기 건물의 기세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웅전도 멋지다.



Walk

안동은 산책가들에게 황홀한 목적지다. 낙동강 상류를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라 곳곳에서 아름다운 물길이 이어진다. 새하얀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 숲, 깎아지른 암벽 사이로 유유히 전진하는 강물은 한 폭의 산수화 같고, 안동댐 인근을 걷는 시간 또한 반짝인다. 원도심의 골목들을 느긋하게 걸어보는 시간 또한 즐겁다. 바람 한 움큼, 햇빛 한 조각이 이끄는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힐링 여행이 기다린다.

안동 트레킹 루트 4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고택이 자리한 안동에는 걷기 좋은 길이 많다. 강과 숲, 고택들을 따라 걸음을 이어가는 안동 최고의 트레킹 루트 네 개를 소개한다.

안동 트레킹 루트

1 퇴계 오솔길

농암종택에서 낙동강을 따라 거슬러 오르는 하이킹 코스가 '퇴계오솔길'로 정비됐다. 조선시대 최고의 사상가였던 퇴계 이황이 걸었던 길이며 낙동강의 절벽을 따라 절경을 자랑하는 조망대와 학소대, 고산정 등 아름다운 풍광을 지난다.

삽재
예던길
학소대
옹달샘
맹개마을
벽력암
분강서원
농암종택
(제1코스 시작점)
START
고산정
월명담
가송리예던길 주차장
(제2코스 도착점)
도산면

퇴계오솔길

한 폭 산수화 같은 퇴계 선생의 산책로

예던길은 '평소 다니던 길, 걷던 길'을 뜻하는 말. 퇴계 이황이 자신의 집에서 농암종택까지 즐겨 걷던 길을 퇴계오솔길이라는 이름으로 정비했다. 농암종택에서 청량산 조망대에 이르는 제1코스는 구비구비 펼쳐지는 절경과 멋진 정자, 고택을 둘러볼 수 있고, 가송리 예던길 주차장에서 시작해 백운지 주차장에 이르는 제2코스는 최근에 만들어져 노면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며 농암종택을 바라보는 경관이 빼어나다. 제1코스의 전체 길이는 8.2km로 약 4시간이 소요되고, 제2코스는 4.11km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일주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농암종택에서 시작해 다시 돌아오는 제1코스만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일정이 넉넉하다면 고택스테이를 운영하는 농암종택에서 하룻밤 묵어가도 좋겠다. 농암종택에서 낙동강 물길을 거슬러 좀 더 오르면 〈미스터선샤인〉에 등장했던 정자 고산정도 구경할 수 있다. 주차는 가송리 예던길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코스에 매점 시설이 없으므로 식수와 먹을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Course 1 — 총 길이 8.2km

가송리 주차장 · 고산정 · 농암종택 · 삽재 · 학소대 · 건지산 · 예던길 전망대

Course 2 — 총 길이 4.11km

가송리 주차장 · 벽력암 전망대 · 백운지 주차장

추천 식당

● **맹개마을(구. 소목화당)**
맹개마을에 위치한 아름다운 농가주택이자 농원이다. 아름다운 수만 평의 밀밭 한가운데 펼쳐진 카페에서 음료와 밀로 빚은 소주, 칵테일 등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농암종택 앞에서 트랙터를 타고 강을 건너 들어가야 하니 방문 시엔 꼭 전화 문의를 할 것. **문의** 010-7604-0065

● **몽실식당**
소박하고 맛있는 가정식 백반을 내며, 콩잎 장아찌, 명태코다리찜 등 경상도의 전통이 고스란히 밴 반찬들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도산면사무소 부근에 위치해 있다. **문의** 054-856-4188

농암종택

절경 속에 묻힌 농암 이현보의 종택

농암종택은 16세기의 학자 농암 이현보의 종택이다. 1976년 문중에서 안동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종택과 사당, 긍구당, 분강서원 등을 한 곳으로 옮겨 놓았다.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종택 앞으로는 청량산에서 내려온 낙동강이 흐르고 그 너머에는 이 지역 특유의 검은 절리암벽이 우뚝 서 있다. 그 풍경 속에 종택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숨겨진 것 같기도 하다. 산수화를 옮긴 것이 아니라 산수화로 옮겨야 할 것 같은 이 풍경의 종택에서, 세상에 나갈 퇴계와 세상에서 물러난 농암은 술과 시를 나눴다. 종택 안 건물들 중 손님을 맞는 별당이었던 긍구당은 경북유형문화재 제 32호다. 종부가 빚어내는 가양주인 일엽편주를 마시며 하룻 밤 묵어가는 농암종택 고택스테이도 안동만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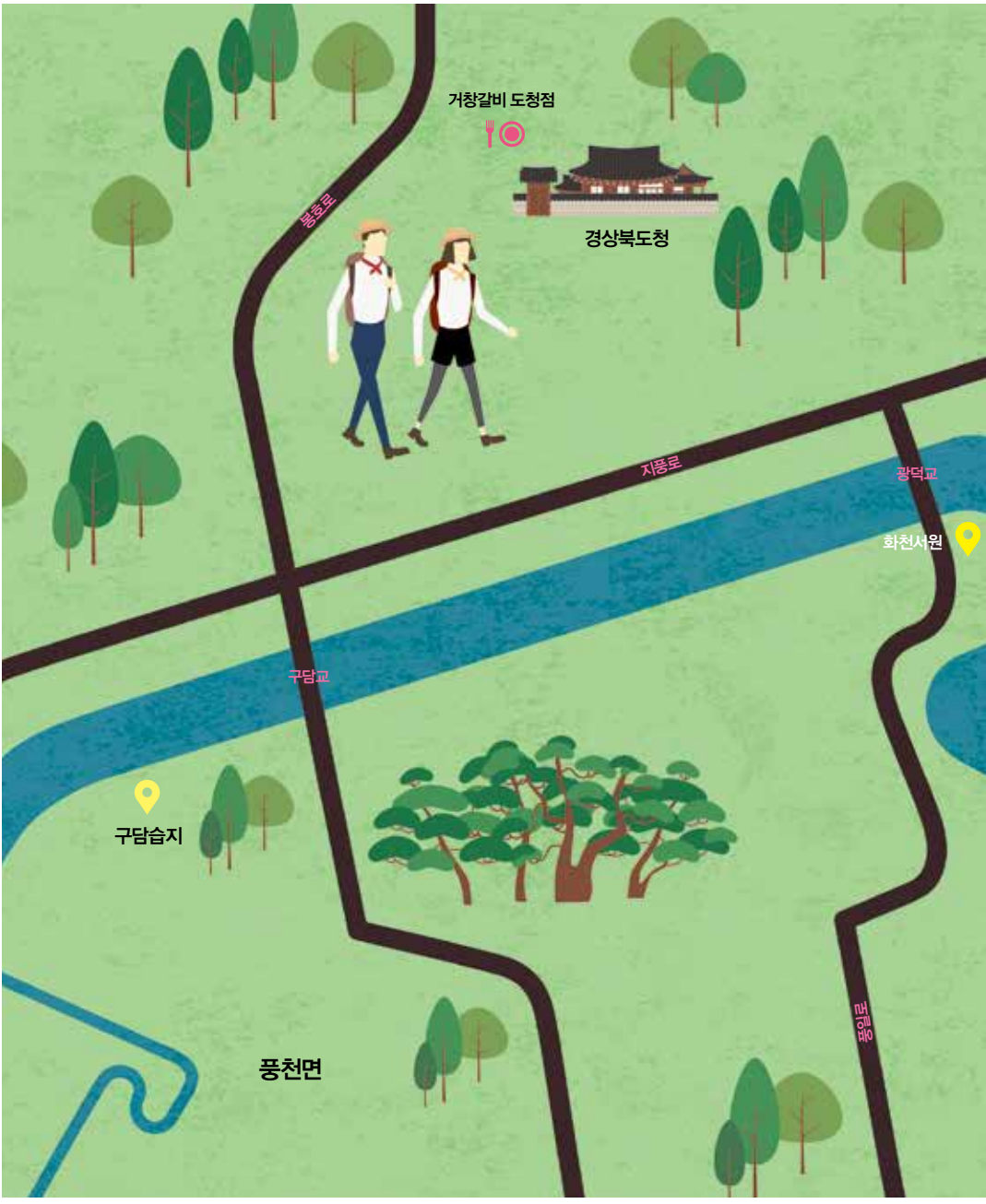
주소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 162-133
전화번호 054-843-1202
홈페이지 nongam.com

고산정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정자

고산정은 정유재란 때 안동 수성장으로 활약하여 좌승지의 자리에 올랐던 성성재 금난수가 세운 정자다. '안동8경'이라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가송협의 절벽과 병풍처럼 늘어선 산 아래 자그마한 정자는 그림처럼 서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으로, 계자난간으로 둘러싸인 복도에 올라 주변 경치를 느긋하게 둘러볼 수 있다. 고산정은 세워진 당시부터 수려한 경치로 유명해, 퇴계 또한 동료 문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을 정도였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유진과 애신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장면에서 고산정이 나온다.

주소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 177-42
전화번호 054-856-3013


거창갈비 도청점
경상북도청
봉황로
지풍로
광덕교
화천서원
구담교
구담습지
풍천면
풍천로

안동 트레킹 루트

2 하회마을길

하회마을길은 낙동강을 따라 풍산읍의 주요 문화재들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유교문화길 2코스에 속하며, 가을날이라면 조금 욕심을 내어 풍산 들판에서 걸음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하회마을길

황금빛 들판을 지나 한국의 옛 마을로

안동에 왔다면 하회마을에 한번은 들러야 할 테다. 그렇다면 풍산 들판부터 시작해 병산서원을 거쳐 하회마을에 들어서는 낙동강 물길을 따라 걸어보자. 안동한지박물관부터 코스가 시작되는데, 언덕 위에 올라선 정자 삼구정을 지나면 둑길이 펼쳐진다. 그로부터 한참 논 사이를 따라 걷는 길이 3km 정도 이어진다. 바람을 따라 출렁이는 식물의 풍경이 마음 깊은 곳의 피로마저 따뜻하게 해소해줄 것이다. 둑길을 지나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걸으면 병산서원이 나온다. 병산서원부터 하회마을까지 '십리 길'에는 아름다운 오솔길이 이어진다. 만송정 소나무 숲을 지나 하회마을을 구경한 후에는 부용대에 올라보는 것을 잊지 말자. 나룻배 운행이 끊기며 20분 정도 빙 둘러 차로를 우회해야 도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한 산행이다. 화천서원 근처 부용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숲에 들어선다. 정상에 올라 하회마을을 실컷 굽어본 후, 부용대 한켠에 조용히 올라선 고택 겸암정사에서 식혜 한 그릇 들이켜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2019년 여름에는 부용대와 만송정을 잇는 섶다리가 설치되었는데 호응이 높았다. 현재 안동시에서는 섶다리 영구 보존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부용대까지 이르는 길이 훨씬 편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용대를 제외한 약 15km 길이의 코스는 도보로 편도 4시간 남짓 걸린다.

Course — 안동한지박물관 — 소산마을 — 병산서원 — 만송정 — 하회마을 — 부용대 — 약 15km

부용대

낙동강 너머 하회마을을 굽어볼 수 있는 절벽

하회마을로 들어서는 길, 강 건너 부용대의 수려한 경치가 먼저 눈을 반긴다. 태백산맥의 맨 끝부분에 해당하며 정상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부용대라는 이름은 중국 고사에서 따온 것으로 부용은 연꽃을 뜻한다. 처음에는 북애(北厓)라 했는데 하회의 '북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부용대는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전통 축제 선유줄불놀이의 현장이며,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는 솔밭과 부용대 사이를 오가는 다리가 지어진다. 부용대를 오른다면 옥연정사와 겸암정사에 들러보는 것을 잊지 말자. 옥연정사는 조선 중기의 대학자 류성룡이 세운 서당이고, 겸암정사는 류성룡의 형 류운룡이 지은 정사다.

주소
안동시 풍천면 광덕솔밭길 72

만송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소나무숲

주소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상 길지였지만, 겨울이면 서쪽의 산과 북쪽 부용대 사이로 세찬 북서풍의 피해를 받곤 했다. 만송정 숲은 겸암 류운룡이 부용대와 마을 사이에 조성한 숲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북서풍을 막고 서 있는데, 조선 선조 때 1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숲은 약 100년 전 다시 심은 것으로 최근에는 강변에도 후계림을 조성하며 조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솔숲에 놓인 벤치에 앉아 부용대를 느긋이 바라보자. 자연을 읽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할 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진다. 천연기념물 제 473호로 지정되었다.

하회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전통 마을

풍산 류씨 집성촌인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낙동강이 큰 원을 그리며 산을 휘감는 지형에 위치해 있는데, 연꽃이 물 위에 뜬 형상처럼 아름답다는 이야기와 함께 길지로 여겨졌다. 마을 입구부터 길을 따라 들어서면 하동고택과 남촌댁, 양진당, 충효당 등 한국의 옛 문화와 역사를 증언하는 고택들이 나타난다. 대종택부터 소작인들이 살던 초가까지 다양한 전통 주택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중 보물로 지정된 곳이 두 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곳이 아홉 채다. 마을의 수려한 지형과 오랜 생활의 흔적을 즐기며 천천히 산책해보자. 주중 한가로운 시간에 방문한다면 흙담을 따라 골목을 누비는 시간이 즐겁고, 일부 가옥에서는 고택스테이도 진행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일요일 오후 2시에는 하회별신굿 탈놀이 공연을 볼 수 있다. 매년 가을 안동시 전역에서 열리는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에 재현하는 전통 축제 선유줄불놀이 또한 장관이다.

주소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추천 식당

- **안동참굳한우**
  고기 퀄리티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육식당. 손님이 직접 확인한 후 구워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믿음직스럽다. 고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사골 육수와 함께 나오는 간장 양념의 육회비빔밥을 주문하자. **문의** 054-843-1356
- **풍전**
  하회마을 다녀오는 길, 예쁜 한옥 카페 풍전에 들러보자. 우엉주먹밥과 함께 나오는 풍전함박스테이크와 참마를 넣은 풍전파스타 등 식사 메뉴도 갖췄다. **문의** 054-858-4036
- **목석원가든**
  최고의 양조간장으로 맛을 낸 안동찜닭과 숯불에 구워낸 간고등어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세트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회마을 1주차장 앞에 나란히 위치한 장승 전시장 목석원에 들러 40년 장승 명인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말자. **문의** 054-853-5332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 가는 오솔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까지

너른 풍산뜰을 가로질러 병산서원에 닿으면 길은 이제 숲속 오솔길로 이어진다. 과거 풍산 류씨를 비롯한 이 지역의 선비들은 병산서원에 배향된 서애 선생의 학식과 지혜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 오솔길을 오갔을 것이다. 그들의 진정성이 지금껏 남아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이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길이 아닐 수 없다.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까지 이어지는 이 오솔길은 약 4km, 어른 걸음으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다. 그리 가파르지 않은 언덕을 가볍게 하이킹 하듯 넘으며 군데군데 모습을 보이는 낙동강의 비경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테크가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짠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원초적 자연들을 만날 수 있으니 주변 풍경을 음미하며 느릿하게 걸을 것을 추천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풍경이 있다면 숲속을 빠져나와 마을로 접어드는 길에 나타나는 하회마을 전경이다. 일반적으로 반대편 부용대에 올라 하회마을을 감상하지만,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하회마을은 또 다른 감성을 자아낸다. 사실 이 길을 걷는 여행객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지만, 걷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다. 오솔길이지만 대체로 널찍하게 잘 닦여 있고, 이정표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고된 산행이 아닌, 잘 조성된 둘레길을 걷는 기분으로 마음 편히 걸으면 된다.

삼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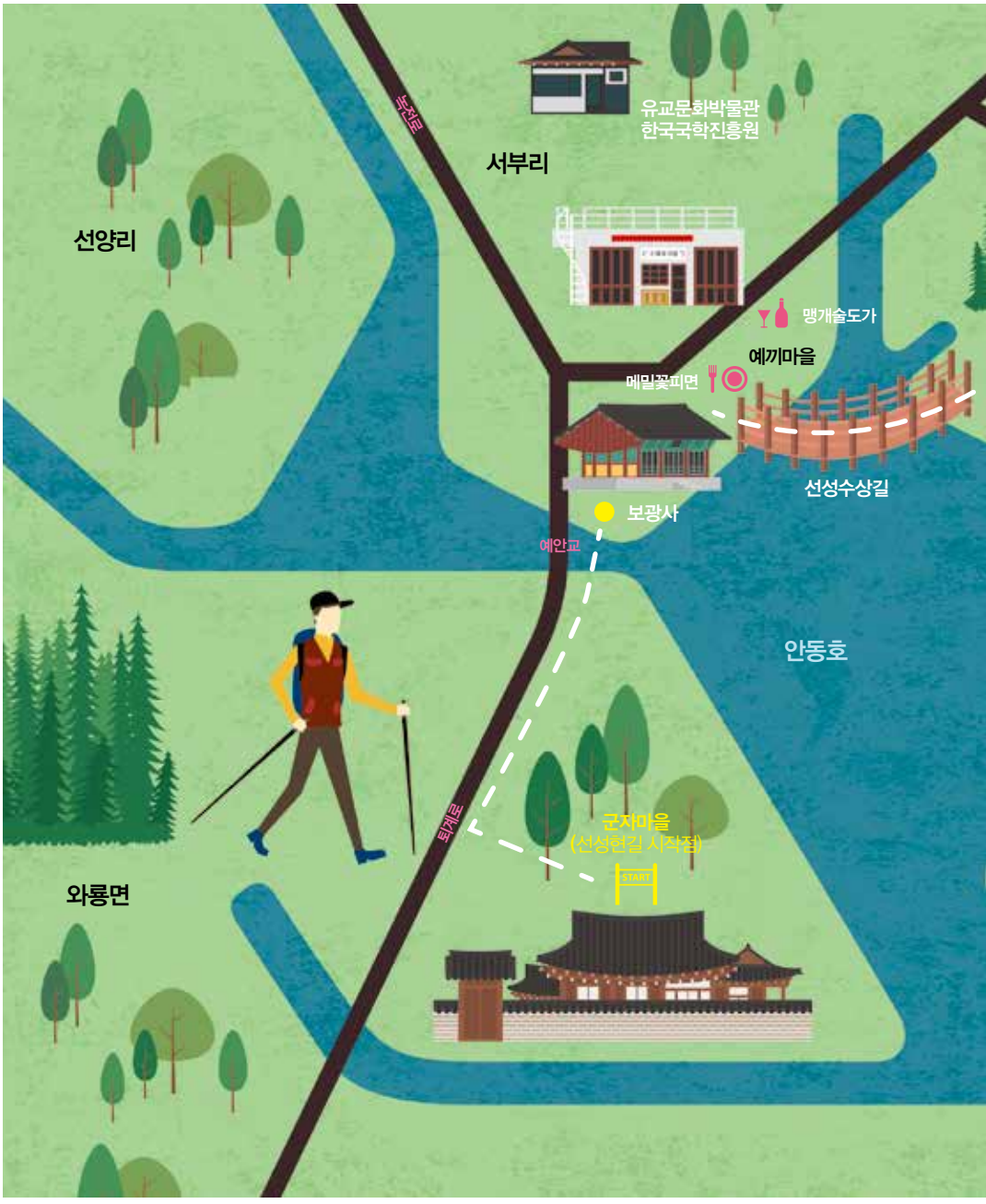
최고의 명당에서 소원을 빌어요

하회마을의 북촌을 걷다보면 웅장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된다. 하회마을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를 잡은 삼신당이다. 하회마을에는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상 · 중 · 하당이 있는데, 삼신당은 삼당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당으로, 6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오고 있다. 삼신당은 자손의 탄생과 건강을 지켜주는 삼신할머니 이야기에서 비롯됐는데, 할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모습에 마음의 위안이 전해진다. 이 나이 지긋한 느티나무 주위에는 방문객들이 묶고 간 하얀 종이가 빽빽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는 하회마을, 그 중심인 삼신당의 성스러움 앞에 자신들의 소원을 적어 매달아 놓은 것. 이 소원지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날 부용대 절벽 앞 모래사장에서 태워 낙동강 강바람에 실어 보내며 한 해의 안녕을 빈다.

빈연정사

최고의 전망과 함께 즐기는 국화차 한잔

국화차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고 선보인 지역이 바로 안동이다. 봉정사 지조암의 돈수 스님이 국화차를 처음 법제했고, 봉정사가 위치한 서후면에 2000년 이후 국화차를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 둘 생기면서 일대가 국화차 생산지가 됐다. 이후 서후면은 국화마을로 불리며, '국화향길'이라는 도로명도 이 지역에 붙여졌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룡 선생이 1583년 관직에서 물러나 하회마을에 돌아왔을 때 서재로 쓰기 위해 지은 집 빈연정사에서 안동의 국화차를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 다도체험이 진행된다. 다도 전문가이자 마을 종부 어른이 노란 국화꽃잎을 우려내어 건네는 국화차 한잔과 3가지 빛깔의 다식이 고운 빛을 낸다. 차 맛을 더욱 깊게 해주는 것은 빈연정사의 일각문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미는 푸르른 만송정과 부용대 절벽을 잇는 파노라마다. 다도체험은 연중 상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되고, 정확한 일정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교문화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서부리
선양리
맹개술도가
예끼마을
메밀꽃피면
선성수상길
보광사
예안교
안동호
군자마을
(선성현길 시작점)
START
와룡면
퇴계로

안동 트레킹 루트

3 선비순례길 제1코스 (선성현길)

도산구곡 중 첫번째 물굽이인 운암곡 주변을 둘러보는 트레킹 코스.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성수상길, 안동의 옛모습과 현모습이 남아 있는 예쁜 마을들을 차례로 지난다.

선성현길

옛 선조의 기개와 안동호의 절경을 감상하는 하이킹

'안동선비순례길'은 안동호 수변을 따라 9개 코스 91km로 조성된 걷기 여행지이다. 안동호의 탁 트인 풍경, 예쁜 벽화로 가득한 예술 마을, 호반 휴양림을 두루 지나갈 수 있는 첫번째 코스 선성현길을 각별히 추천한다. 오천리 군자마을에서 시작하여 코스 이름이 된 선성현문화단지를 거쳐 월천서당에 이른다. 군자마을 뒷산을 넘어 안동호반을 따라가는데 편안한 산길과 걷기 쉬운 데크로 이어진다.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일 경우 군자마을 입구에 주차 공간이 있으며, 비순환형 코스이므로 오천1리정류장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좋다. 군자마을에서 고택 체험 숙박이 가능하다.

Course — 군자마을 — 보광사 — 선성현문화단지 —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 월천서당 — 총 길이 13.7km

선성수상길

호수 위 아득하게 뻗은 수상 다리

안동호 위를 걸어 건널 수 있도록 만든 수상 데크로, 길이 1.2km에 달한다. 수위 변화에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부력을 이용해 건설했는데, 물 위에서 출렁거려 '출렁다리'라고도 불린다. 도산면 보건지소를 찾아가면 이어지는 길이 표시되어 있으며, 아기자기한 벽화로 유명한 예끼마을 또한 자연스럽게 지난다. 선성수상길 시작 지점에는 옛 관아를 복원한 선성현 한옥 체험관이 있어 전통 문화를 둘러볼 수 있고, 한국국학진흥원도 인근에 있다. 수상길 중간 지점에 있는 쉼터를 겸한 포토존은 안동댐으로 수몰되기 전 예안 국민학교가 있던 자리이다. 교가와 학생 활동 사진, 교실을 연상케 하는 풍금과 책상, 칠판 등이 설치되어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주소
안동시 도산면 선성5길 13

군자마을

한옥 고건축의 백미로 남은 군자들의 마을

군자마을은 예전 낙동강 기슭에 위치했던 '외내'를 재현한 마을이다. 약 600년 전 형성되었던 외내마을은 광산 김씨 예안파가 약 20대에 걸쳐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외내가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가옥과 마을 소유의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현재의 장소인 안동시 와룡면으로 옮기고 마을 이름을 군자마을이라 지었는데.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별세계 같다. 군자마을에서는 아름다운 한옥 건축의 정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마을 내 고택들은 대다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의 정자 중 하나인 지애정은 카페로 운영 중이다.

주소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21
웹사이트 www.gunjari.net

월천서당

퇴계가 쓴 현판이 남아 있는 아담한 서당

조선시대 학자 월천 조목이 학문을 배우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서당이다. 월천 조목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 여러 관직을 거쳐 공조참판에 올랐으며,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모집해 앞장서 싸웠다. 450년 수령의 은행나무 거목을 지나 좀 더 걸어들어가면 가파른 층계와 솟을대문이 보인다. 담 안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월천서당은 목조 단층 기와집이며 현판은 퇴계 이황이 썼다. 조선 중기 서당 건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보존되고 있다. 월천서당 우측으로 조금 걸으면 안동호의 전망이 한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

주소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437-7

추천 식당

- **농가맛집 뜰**
  조선행 요리연구가는 식재료를 직접 가꾸는 농부이자 안동 권씨 부호장공파의 종가 며느리다. 뜰한상부터 뜰수라상까지 4개의 상차림은 종가 음식을 새롭게 해석한 요리들로 풍성하다. **문의** 054-857-6051
- **메밀꽃피면**
  맹개마을의 친환경 메밀밭 2만여 평에서 재배한 메밀로 자가제면한 국수를 판다. 달콤면, 시원면, 매콤면 세 종류가 있으며, 제철 산야채와 황태구이, 메밀국수 등으로 구성한 미오기 집밥도 인기 높다. **문의** 054-843-1253

안동 트레킹 루트

4 월영교 산책길

한국에서 가장 긴 목책 다리 월영교와 호반나들이길이 이어지며, 안동댐 보조호수 인근은 사시사철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유람선 위에서, 숲 속 산책로에서,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물과 산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세계물포럼 기념센터
영탑교
민속촌길
안동민속박물관
(월영교 산책길 도착점)
개목나루 문보트
민속촌길
민속촌
안동석빙고
구름에 리조트
선성현 객사
성곡동

월영교 산책길

월영교 물가를 걸으며 낭만을 만끽하다

안동댐 보조호수의 좌안은 무성하고 깨끗한 숲과 수려한 경치로 유명했지만, 안동댐이 건설된 후 40여 년 동안 드나들 수 없었다. 안동시에서 호수 양쪽을 잇는 월영교를 짓고 2km 길이에 이르는 낙강물길공원 산책로를 건설하며 비로소 그 풍경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됐다. 낙강물길공원부터 월영교를 지나, 석빙고, 민속촌, 안동민속박물관까지 이르는 길을 강 따라 걷다보면 목교와 로프 난간, 분수, 전망대들, 낭만적인 가로등들을 만난다. 거울처럼 맑은 호수 위로 단풍이 지는 가을이면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날지도 모른다. 월영교 산책길을 천천히 걸으면 왕복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산책을 시작하기 전 화장실 들르는 것을 잊지 말자. 음료도 챙겨가면 좋다.

Course — 낙강 물길공원 — 월영교 — 개목나루 — 안동 민속박물관 — 약 2km

월영교

달 그림자 아름다운 호수 위 목책교

주소 안동시 석주로 202

길이 387m, 월영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다리다. 다리 한가운데에는 팔각 정자 월영정이 발길을 기다린다. 댐 건설로 수몰된 월영대가 이곳으로 옮겨지며 붙은 이름이지만, 고요한 호수 위로 오색 불빛이 들어오는 낭만적 경치를 즐기다 보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달그림자'라는 뜻이 바로 이해된다. 다리 한가운데 월영정에 앉아 낙동강을 부드럽게 감싸는 산세를 바라보다 보면 시간은 쏜살같이 흐른다. 월영교는 조선시대 이 지역에 살았던 이응태 부부를 기념하는 조형물이기도 하다. 먼저 간 남편을 위해 아내가 머리카락으로 만든 한 켤레 미투리 모양을 다리의 모습에 담았다. 그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을 기념하는 장소답게 연인들에게 더욱 인기 높은 목적지다.

월영장터

한 달에 한번 특별한 플리마켓

월영교를 건너 왼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안동민속박물관까지 수백 미터 정도의 데크 산책로가 이어진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이 짤막한 길은 무척 특별한 장소가 된다. '월영장터'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플리마켓 덕분이다. 안동의 젊은 장인, 파티셰, 상인들이 다양한 수제품을 선보인다. 마카롱, 나무 도마, 캔들, 농산물과 건어물 등 식품에 이르기까지 노점의 물건들은 다채롭고 풍성하다. 나무 그늘 아래 장터에서는 느긋하게 오가는 행인들과 부드러운 강바람 덕에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숨어 있는 가게들이 야외로 나와 즐비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문보트

월영교를 떠다니는 형형색색 초승달

주소 안동시 민속촌길 26 안동댐 개목나루 황포돛배 탑승장
전화번호 054-841-1027
운영 시간 10:00~22:00
가격 문보트 1대 28000원(30분, 3인승), 황포돛대 대인 8000원, 소인 5000원

월영교 야경은 안동의 밤을 대표해왔다. 2021년 3월 월영교 아래 새롭게 등장한 문보트는 월영교의 밤을 더욱 환히 밝히며 낙동강 위를 유유히 떠다닌다. 문보트는 IoT 기술이 접목된 초승달 모양의 보트로, 동시에 3인까지 탑승 가능하고 LED를 통해 탑승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선체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조이스틱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조종이 가능하다. 안동민속박물관 근처 조선시대 나루터를 복원한 개목나루에서 출발하며, 이곳에서 함께 운영되는 황포돛배는 조선 선조 때 편찬한 안동부 기록에 근거해 제작한 10m 길이의 목선이다. 문보트와 황포돛배를 타고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는 월영교는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선사할 것이다.

추천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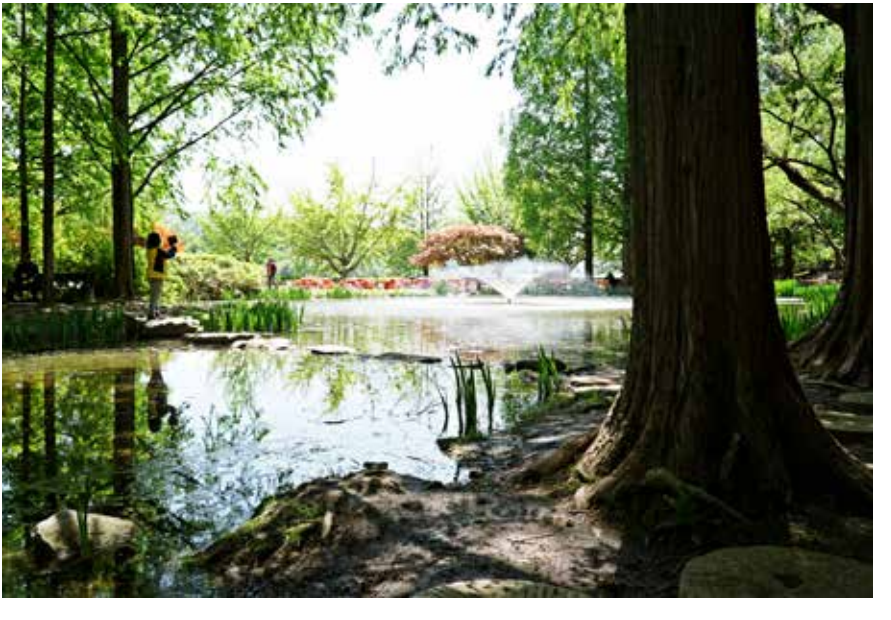
- **맛50년헛제사밥**
  안동의 명물 헛제삿밥을 최초로 상업화 시킨 식당. 탕국, 나물밥과 배추전, 호박전, 계란, 산적, 두부구이, 다시마전, 상어고기가 함께 나온다. **문의** 054-821-2944
- **월영교 달빵**
  보름달처럼 동그란 모양새부터 먹음직스럽다. 크림에는 고소한 안동 마를 갈아 넣었고, 유기농 밀과 천연 발효 버터, 꿀로 반죽한 빵이 일품이다. **문의** 054-852-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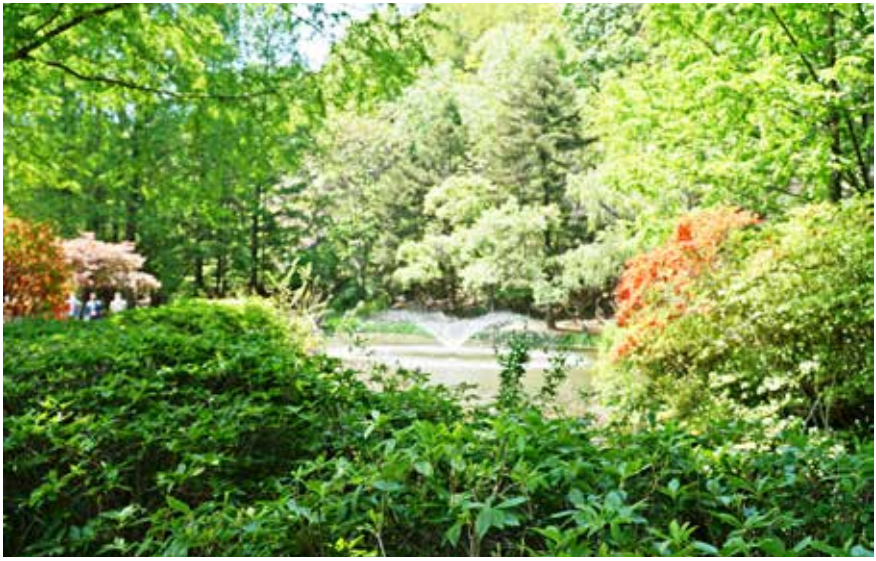
낙강물길공원

인스타 성지가 된 비밀의 숲

월영교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걷다 보면 막다른 길에 이른다. 이곳에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낙강물길공원은 때문인지 안동 사람들로부터 '비밀의 숲'으로 불리게 됐고, 프랑스의 지베르니 정원을 닮아 '한국의 지베르니'란 애칭까지 얻으며 SNS 등을 통해 수많은 '좋아요'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순식간에 안동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낙강물길공원 속으로 입장하는 순간, 남녀노소 누구나 먼저 카메라나 스마트폰부터 꺼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아담한 공원을 빼곡하게 둘러싼 크고 작은 나무들, 그 나무들을 비추는 몽환적인 연못, 연못 위로 촉촉하게 떨어지는 감성의 물줄기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징검다리와 아치형 나무다리는 끊임없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꽃들이 정원을 알록달록 물들이면 이곳으로 소풍 나오는 이들은 더욱 많아진다. 키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 아래, 분수 앞, 꽃대궐 사이 등 어디에나 나를 위한 힐링이 숨어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인스타그래머블이 되는 마법도 그곳에 함께 있다.

주소 안동시 상아동 423





안동 마을 산책

**고요한 호수 앞 예술가들의 동네부터 도시 한가운데 고즈넉한 한옥 마을까지,
반드시 걸어봐야 할 안동의 아름다운 동네들.**

ROAD 01

예끼마을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예쁜 마을

주소
안동시 도산면 선성길 14

찾아가는 법
안동역에서 자동차로 35분 정도 소요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안동 교보생명 방향
버스를 탄 후, 1번 을
타고 한국국학진흥원
정류장에서 내린다

안동 도산면 서부리에 위치한 예끼마을은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예안마을의 이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행정구역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속하지만, 주민 일부는 여전히 예안마을이라고 부른다. 예안마을은 안동에서 가장 상권이 발전된 마을이었으나, 안동댐 건설 이후 경제적으로 쇠락했다. 2015년 작가이자 여행가 한젬마의 주도로 '도산 서부리 예술 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예술에 끼가 있다'라는 뜻의 예끼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마을 골목을 정비하며 담장에 벽화를 더하고 곳곳에 기발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한편 가게의 간판들도 깔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했다. 침체된 마을은 예술의 힘으로 활기를 얻기 시작했다. 예끼마을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사진들을 촬영하기에도 좋지만, 사진 몇 컷만 남긴 채 떠나기엔 아쉬운 곳이다. 과거 관아 건물을 개조해 만든 숙소 선성현문화단지 한옥 체험관과 한국국학진흥원 내 유교문화박물관 등 마을 내에 위치한 볼거리들을 놓치지 말자.

한국국학진흥원

주소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전화번호 054-851-0700
홈페이지
www.koreastudy.or.kr
운영 시간 09:00~17:30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깊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학 전문 연구 기관이다. 문중이나 서원 등이 소장한 기록문화재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학 연구소가 안동에 위치해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본관 뒤 4층 규모의 유교문화박물관에 관심이 간다. 2006년 6월 개관한 국내 유일의 유교문화 전문박물관으로, 9개 주제로 구성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각종 최첨단 보존 장비를 갖춘 30만 점 수장 규모의 수장고를 갖췄다. 소장품 중 유교책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숙박 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수제자 식당

주소
안동시 도산면 선성길 17

한국국학진흥원 맞은 편에 익숙한 건물이 한 채 보인다. 예능 프로그램 〈위대한 수제자〉의 팝업스토어 수제자 식당이 그 주인공이다. 이연복 셰프와 이홍운 셰프, 김소봉 셰프, 차오루가 함께 했던 예끼마을 수제자 식당은 2019년 여름 방영되며 큰 화제를 낳았다. 콩비지전과 쫄면, 여주 콩국수 등 화면 위 먹음직스러웠던 메뉴는 이제 맛볼 수 없지만, 하얀색 나선 계단과 빨간 차양으로 귀엽게 장식한 팝업스토어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았다. 가게 앞에서 근사한 인증 샷을 남겨보자.

ROAD 02

태사길

안동의 젊음, 안동의 낭만

찾아가는 법
태사묘가 태사길 산책의 시작. 태사길을 따라 웅부공원을 지난 후 왼쪽 태사2길로 발길을 돌려 골목 골목 느긋하게 둘러본다.

안동 원도심의 태사묘부터 웅부공원, 안동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까지 한 줄 골목 태사길에는 단층 한옥 주택이 많이 남아 있다. 안동에서는 현재 300여 채의 고택을 찾아볼 수 있다. 일제시대와 전쟁을 통과하며 수많은 가옥이 불에 타거나 허물어졌지만, 태사길 인근의 필지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한옥과 적산가옥이 남아 있다. 원도심의 기능이 이전하거나 분산되며 지금은 행인의 수가 줄었으나, 이방인에게는 길 위의 여유가 오히려 반갑다. 2019년 4월 안동시는 옥정동, 동문동, 동부동, 신세동과 율세동을 '한옥마을'로 지정했다. 한옥 이외의 건물은 신축을 금지하고 담장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외에 남아 있는 서원과 고택에 양반문화의 위세가 스며 있다면, 태사길의 한옥들은 한결 친근하고 다정하다. 역사적 시점과 사람의 생활, 모든 면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집과 집, 골목과 골목 사이로 발길을 옮긴다. 사람이 꾸준하게 살아온 집에는 윤기가 돈다. 태사길 한옥의 개성은 건축가의 설계가 아닌 집주인이 보낸 세월의 산물이다. 집 앞 자그마한 정원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담장 너머로 뻗어나온 가지에는 아직 덜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 처마 위 기와 지붕은 단정하게 낡았다. 낭만적인 옛 골목을 지나다 마음에 드는 카페가 보인다면 발길을 쉬어가자. 관공서보다 먼저 태사길을 알아본 젊은이들이 오픈한 멋진 가게가 많다.

태사묘

태사길 이름의 연원이 된 태사묘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운 세 명의 공신 권행, 김선평, 장정필을 모신 사당이다. 938년 처음으로 세 공신의 제사를 안동부사에서 행했다. 세 명의 공신이 모두 안동 사람이었기에 이곳에 사당이 세워졌다. 통일신라시대 안동은 고창군으로 불렸는데, 930년 벌어진 고창전투는 후삼국 통일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왕건은 '동쪽을 평안히 했다'는 뜻을 담아 고창군의 이름을 '안동'으로 바꿨다. 삼태사가 견훤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기념하던 잔치에서 비롯된 차전놀이가 태사묘 안에 전승, 보전되고 있다.

주소
안동시 태사길 13
전화번호 054-852-1969

웅부공원

태사묘에서 도보로 2~3분 거리, 웅부공원은 역사적 명소이자 시민들의 쉼터다. 고려 공민왕 때의 대도호부 그리고 과거 안동군청 청사가 있던 자리에 조성된 공원. 옛 관아의 동헌을 복원한 영가헌과 오래되고 신령한 나무 부신목이 있다. 웅부공원에서 임청각으로 향해 신세동 벽화마을을 돌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소
안동시 서동문로 193

ROAD 03

지례예술촌

은둔자의 마을에서 힐링하다

주소 안동시 임동면 지례예술촌길 427

찾아가는 법
안동역에서 차량으로 55분 거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안동역, 안동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임동정류장에서 하차 후 택시로 이동해야 한다.

지례예술촌은 안동에서도 구비구비 첩첩산중 호숫가에 위치해 있다. 지례마을은 원래 숙종 때 대사성을 지낸 지촌 김방걸의 자손이 360년간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던 지역이었다. 은둔 생활을 좋아했던 지촌이 조용히 숨어 있는 지례에 집을 지었던 것. 이후 지례마을은 관직에 오르는 대신 학문을 평생 탐구하는 문인과 유학자를 배출하며 이어져왔다. 1975년에야 전기가 들어오고 버스가 다닐 정도로 외졌던 마을은 1988년 임하댐 건설과 함께 수몰을 피해 마을 뒷산으로 옮겨졌다. 이후 지례예술촌은 아시아 최초의 창작예술촌으로 고택 체험과 한옥 체험의 시대를 열었다. 지금도 지례예술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평화와 고요 그 자체다. 마루 끝에 앉아 벌레 소리를 듣거나 푸른 산과 호수를 마냥 바라보는 동안 일상에 지쳤던 마음은 스르르 치유된다. 컬러링북, 책갈피 만들기, 제사 참여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다. 호수 위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을 즈음, 먼 옛날 지촌이 지었던 시를 마음 속으로 음미해보는 것도 좋겠다. '공들여 쌓은 돌탑 바람이 쓸게 하고 / 가꾸던 매화단도 새가 와서 울게 두자 / 이제껏 하던 일 모두 접고서 / 종일토록 말없이 푸른 산 보네.' 숙박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촌제청

지례예술촌은 예술가 마을이자 고택 숙박을 체험할 수 있는 빼어난 여행지지만,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남아 있는 동네이기도 하다. 지촌제청은 지촌 김방걸의 제사를 모시는 제청으로, 후학을 위한 강당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지은 목조 한옥이며 고졸한 분위기가 남아 있다.

주소 안동시 임동면 지례예술촌길 427

지산서당

지례마을은 관직보다 학문에 뜻을 둔 청렴한 선비들의 마을이었다. 그런 마을에서 서당이 얼마나 중요했을지 두말 할 필요 없다. 임하댐 건설로 다른 건물들과 현재 위치로 옮겨진 지산서당은 남서향으로 지어진 남서향 한옥이다. 지례예술촌을 산책하며 잠시 들러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을 살펴보기 좋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9호로 지정됐다.

주소 안동시 임동면 지례예술촌길 427

ROAD 04

안동포마을

천 년의 역사를 이어 온 안동포마을

주소
안동시 임하면 금소3길 3

찾아가는 법
안동역에서 차량으로 21분 거리이다.
안동터미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2, 628번 버스를 타고 금소리에 하차하면 된다. 소요시간은 1시간 16분.

안동은 질 좋은 삼베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기후와 토질이 대마 재배 조건에 적합했고, 신라시대부터 화랑의 의복을 안동포로 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신라 3대 유리왕 때부터 이 지역에서 삼심기 대회를 열었다는 역사도 있다. 그 전통이 보존되고 있는 곳이 바로 안동포마을이다. 안동포는 옛날 왕의 진상품으로 올려졌으며 경상북도 지방 무형문화재 1호로도 지정됐다. 안동포로 유명한 마을답게 일 년 내내 베 짜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안동포를 만드는 모든 과정은 사람의 손으로 진행된다. 수확한 삼을 푹 찐 후 말려 손톱으로 일일이 찢는다. 삼올의 끝과 끝을 일일이 연결하고 베틀로 짜낸다. 온갖 정성을 들여 완성된 안동포는 연한 황색과 가늘고 고운 짜임새가 고급스럽다. 질 좋은 안동포를 구할 수 있는 곳이지만, 굳이 안동포를 사지 않더라도 들러볼만한 가치가 있다. 허공에 매달아둔 안동포의 풍경이 정겹고, 맑은 길안천과 나지막한 산이 이루는 배산임수 지형도 포근하다. 예천 임씨, 울진 임씨 등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 유물, 유적과 문집 등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의 휴식

자연 속 산책으로 온화해진 마음을 더욱 달콤하게 위로해줄 차 한 잔이 기다린다. 안동의 건강한 식재료, 빼어난 자연 풍광, 조용한 분위기를 모두 갖춘 안동 최고의 힐링 카페 4곳.

01 카페라이프

바삭한 첫 식감에 이어 진한 생강향이 촉촉한 빵 사이로 훅 스민다. 휘낭시에 질감의 '생강빵'을 비롯해, 참마우유와 비단주스, 생강라떼까지 핵심 식재료 대부분을 안동 농민들이 재배했다. 맛과 뜻을 한 번에 잡는 진정한 '팜 투 테이블' 카페.
주소 안동시 중앙로 56 **전화번호** 054-842-2122 **영업시간** 09:00~20:00 **휴무** 명절 당일 **가격** 참마우유 6000원, 당근케이크 4800원, 비단주스 7000원, 생강빵 2500원 **인스타그램** @cafelife_andong

02 땡큐커피

나무와 벽돌의 만남으로 세워진 정문으로 들어서면 자연주의적 도시가 펼쳐진다. 오래된 돌과 나무 그리고 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따스한 감성이 실내외 어디에서나 보이지 않게 흐른다. 직접 만든 바닐라빈 시럽을 넣은 바닐라 라떼, 오트밀과 피칸, 호박씨, 블루베리 등 다양한 재료를 구워내는 그래놀라 요거트 등이 매력적이다.
주소 안동시 영호2길 15 **전화번호** 054-854-7006 **영업시간** 11:00~21:00 **휴무** 월~화요일 **가격** 그래놀라 과일 요거트 6800원, 수제바닐라라떼 5500원, 바질스콘 4200원 **인스타그램** @thanqcoffee

03 태리커피

매일 새벽 직접 로스팅하는 신선한 원두로 유명한 로스터리 카페다. '안동 최고의 커피'라는 찬사를 받으며 모든 커피 메뉴가 사랑받는 가운데, 특히 아인슈페너의 인기가 높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수령 400년 이상의 왕버드나무 아래 데크에서 커피를 즐기는 운치를 누릴 수 있다.
주소 안동시 와룡면 태리 12(모산골길 5) **전화번호** 010-3737-5470 **영업시간** 11:00~20:00 **휴무** 월~화요일(연휴에는 오픈) **가격** 아인슈페너 5500원, 와룡생강라떼 5500원, 유기농통밀초코칩쿠키 1500원 **인스타그램** @life_in_tarry

04 풍전

하회마을 인근 풍산읍에 예쁜 한옥 카페가 있다. 공간 구석구석을 감각적으로 꾸며놓아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쏠쏠하다. 음료와 함께 식사 메뉴도 다양하게 갖췄는데, 우엉주먹밥과 함께 나오는 풍전 함박스테이크와 참마를 넣은 풍전파스타가 대표 메뉴다.
주소 안동시 풍산읍 안교1길 9 **전화번호** 054-858-4036 **영업시간** 10:30~21:30 **휴무** 월요일(공휴일 제외) **가격** 풍전파스타 10000원, 풍전함박스테이크 12000원, 풍전 스페셜 솔트라떼 6000원 **인스타그램** @pung_jeon

Rest

고택의 밤은 한없이 깊다.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 일상의 커다란 쉼표가 되어준다. 안동은 수준 높은 고택 체험으로 손꼽히는 도시다. 유서 깊은 종가의 종택과 잘 보존된 한옥들이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안동을 대표하는 고택 호텔과 숙소,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너른 마당에 고이는 한 점 햇빛, 마루와 문간을 드나드는 바람 한 폭, 객실 바깥으로 보이는 깊은 숲을 느긋하게 즐겨보자.

구름에 리조트

럭셔리 한옥 호텔의 정답

주소 안동시 민속촌길 190
전화번호 054-823-9001
홈페이지
www.gurume-andong.com

구름에 리조트는 안동댐 근처에 위치해 있다.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기 전의 한옥 고택들을 옮겨 복원하고 현대적 시설을 갖췄다. 2452평의 부지에 총 8개 동, 23개의 객실이 있는데, 모든 한옥의 구조와 모양은 다르다. 계남고택, 칠곡고택 등 가옥부터 감동재사를 비롯한 사당, 박산정을 비롯한 정자까지 저마다 이야기와 역사를 간직한 옛 건물들을 숙박 시설로 세심하게 고쳤기 때문이다.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현대적 편리함을 가미했는데, 잘 정비된 욕실은 물론 책을 빌릴 수 있는 북카페, 체험 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레스토랑과 라운지까지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안동 종가의 전통을 이은 건진국수와 순살 닭찜 등 지역 전통 요리를 수준 높게 준비한다. 고택 숙소 중에서는 드물게 24시간 체크인 · 체크아웃과 도어맨 서비스 등 현대적 특급 호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편의 서비스도 갖췄다. 여행 인원이 많아 독채를 빌리는 경우엔 대청마루와 마당을 내 것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네모난 마당이 품은 하늘, 바깥 풍경까지 집의 일부가 되는 한옥의 매력을 실컷 누려보자.

락고재 안동

부용대의 절경을 내 것처럼 품은 초가 호텔

하회마을 초입, 부용대와 솔숲, 낙동강의 절경을 바라보면 말문이 막힌다. 하루를 이런 풍경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옥 호텔 락고재는 그 백일몽을 현실로 이뤄주는 곳이다. 락고재 안동은 하회마을의 나루터 앞에 포근하게 내려앉은 정겨운 초가집이다. 안채, 별채, 사랑채, 문간채 4개동 초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실 수가 적으니 성수기에는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각방에 욕실이 단정하게 자리잡아 불편함이 없고 TV, 냉장고, 찜질방 등의 편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조식은 한식 양식 모두 가능하다. 한식은 전복죽과 고등어구이가 나오고, 양식은 커피와 달걀, 베이컨, 요거트 등이 나온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진정한 쉼을 누리기에 딱 좋은 안식처다. 2021년 가을 개관 예정인 락고재 본관은 풀빌라 기와집, 박물관도 있고 규모도 훨씬 크다.

주소 안동시 풍천면 하회강변길 51
전화번호 054-857-3410
홈페이지 rkj.co.kr

치암고택

퇴계 이황 11대손의 종택을 경험하다

주소 안동시 퇴계로 297-10
전화번호 010-3530-4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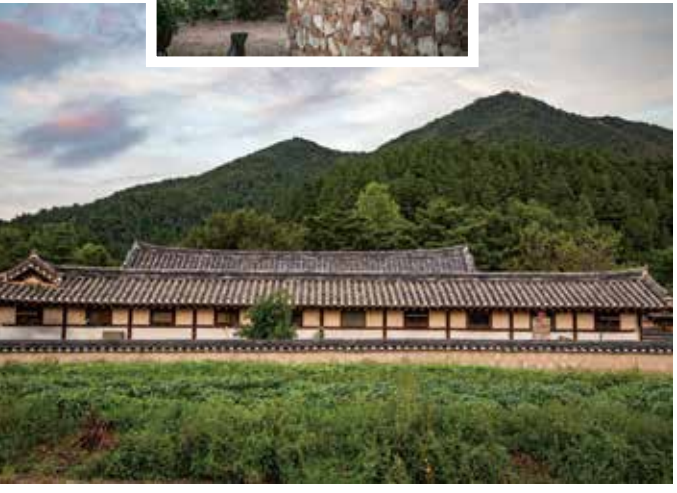
치암고택은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 받았으며 지금은 고택을 체험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에게 숙박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안동댐 건설로 인해 원촌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는데, 퇴계 이황 11대손 치암 이만현이 살던 집으로 안동의 전형적 상류 주택 구성을 보여준다. 성명재, 경업재, 낙성당 등의 사랑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큰 방인 바깥채는 주방이 있고 텔레비전과 에어컨 그리고 개별 화장실이 잘 마련되어 있어 하룻밤 숙박하기에 좋은 곳이다. 진실되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갖자는 사랑채 아랫방 성명재는 온돌바닥으로 한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으로 하룻밤 묵기에 편하고 사랑채 윗방의 경업재는 욕심을 버리고 항상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자는 뜻으로 숙박 손님들에게 인기있는 방이다. 치암고택의 특별함은 다과상 체험 프로그램에 있다. 퇴계를 기리는 내림 음식 육우원 다과를 대대로 전하고 있는데, 굳은 절개와 맑은 향기를 담은 식물들을 접시 위에 그림처럼 아름답게 담아낸다. 비교적 시내에서 가까운 편이라 대중교통으로 도 접근이 어렵지 않다.

수애당

반가의 헛제삿밥을 즐길 수 있는 고택스테이

호수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 수애당은 수애 류진걸 선생이 1939년 건립한 집으로 조선 말기 한옥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임하댐 건설로 1989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황토방과 온돌방이 있고 50여 명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방과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규모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규모가 있는 편이다. 아침 식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5인 이상 1인당 15,000원에 제공되는데, 헛제사비빔밥이 특별하다. 간고등어, 쇠고기 산적, 상어 산적과 계란 고명을 올린 맑은 탕국, 부드러운 풍미의 배추전 등이 묵직한 놋그릇과 함께 나오고, 고소한 국수 위에 아삭아삭 씹히는 삼색나물을 얹어 '헛제사국수' 한 끼를 낸다. 안동의 종부와 안주인 5명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서로가'의 연락책이자 대표인 수애당 안주인의 활달함과 친절함은 고택스테이가 고루하다는 편견을 내려놓게 한다.

주소 안동시 임동면 수곡용계로 1714-11
전화번호 054-822-6661
홈페이지 www.suaedang.com



정재종택

솔잎 향기 송화주 빚는 종부의 집

주소
안동시 임동면
경동로 2661-8
전화번호 054-822-6205
홈페이지 jeonjae.modoo.at

임하호가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한 곳, 300여 년의 시간을 안고 있는 정재종택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정재 선생의 집이다. 임동면에 있다가 1987년 임하댐 건설로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시내에선 차로 40분, 다소 먼 거리라 버스 타고 오는 고객들은 정류장 픽업도 가능하다. 대문채,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등 4동의 건물에 7실의 객실을 운영한다. 안동 송화주를 빚어 제사를 지낼 때와 손님을 맞을 때 사용한다. 추가 비용으로 종부의 아침 식사나 주안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재종택의 김영한 종부는 한국 최초의 요리서 〈수운잡방〉의 전수자이자 무형문화재 송화주 기능보유자다. 그녀가 아침식사를 겸한 한옥스테이를 운영한다는 건 진지한 미식가들에게 더없는 행운이다. 한옥 마루로 시원한 바람이 드나드는 아침, 소반 위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에는 수란국, 북어를 두드려 만든 보푸름 등 이제는 만나보기 힘든 옛 반가 음식들이 그대로 재현된다. 근처 25분 거리에 만휴정이 위치해 같이 돌아볼 수 있다.

힐링 기념품 쇼핑하기

안동의 품위 있고 느긋한 분위기는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지만, 여행이 끝난 후 우리는 바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매일의 생활에 휴식과 에너지를 보충해줄 안동 여행 기념품 4개.

01 수제 생강청과 참마 분말 at 카페라이프

식품공학을 전공한 젊은 여주인이 음료와 디저트 메뉴들을 선보인다. 부모님을 비롯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참마, 생강, 계절과일, 꿀 등을 사용해 진정한 '팜 투 테이블'을 실천하는데, 참마가루와 수제 생강청 등의 재료도 구입할 수 있다. 우유와 꿀에 섞어 한 잔 마시면 맛있고 배부를 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생강은 감기나 기침에 좋고, 참마의 뮤신 성분은 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주소 안동시 중앙로 56 **전화번호** 054-842-2122

02 달님 도마 at 소규모상점

소규모 상점은 안동으로 이주한 젊은 장인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셀렉트숍이다. 매장을 운영하는 부부 역시 크고 작은 나무 제품들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인기 높은 것이 바로 달님 도마다. 둥그런 곡선은 쓰다듬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지막에 깨끗 이 씻어 말려두면 살며시 감도는 나무 냄새도 즐겁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상의 행복을 안겨줄 아이템.
주소 안동시 퇴계로 100 **전화번호** 054-853-7444

03 맛있는 전통주 at 농협 파머스 마켓

안동에서 술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할까? 정답은 안동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농협 파머스 마켓이다. 마트 안쪽 전통주 코너에는 조옥화, 박재서 등 명인들이 만든 안동소주는 물론, 안동 자색 고구마로 만든 전통주 고백, 백진주 막걸리 등 훌륭한 지역 술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집에 두고 맛있는 술이 생각나는 밤 조금씩 마셔보면 어떨까? 선물용으로도 좋다.
주소 안동시 제비원로 141 **전화번호** 054-853-7088

04 목화솜 베개 at 행복수예사

안동 신시장 행복수예사에 들어서는 순간 시야를 사로잡는 풍경이 있다. 수납장 속 옹기종기 쌓인 색색의 베개는 당장 지갑을 열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럭셔리 한옥 리조트 구름에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물건인만큼 우아하고 세련된 색감 또한 매력적이다. 행복수예사의 베개는 옹골차게 솜을 채워 부드럽고 편안하다. 가장 마음에 드는 색이 무엇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주소 안동시 중앙시장1길 47 **전화번호** 054-853-7444

Culture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의 가치는 21세기에도 바래지 않는다.
역사적 가치는 물론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안동의 문화 유산 네 곳을 골랐다. 머물고 거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깊고 둥글게
만들어줄 시간이 기다린다.

도산서원

퇴계의 정신을 계승하는 안동 문화 유산의 상징

주소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전화번호 054-856-1073
홈페이지 dosanseowon.com

도산서원은 안동의 명소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일 것이다. 그 명성은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의 존재감에서 비롯된다. 도산서원은 건립 후 오랫동안 성리학의 본산이자 영남 유학의 구심점으로 활약해왔다. 현재의 도산서원은 퇴계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서당 영역과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 영역으로 나뉜다. 서당은 퇴계의 인품을 반영하듯 검소하고 조용한 한편, 퇴계 사후 6년 뒤인 1576년 완공된 서원은 대학자의 권위를 설득시키려는 듯 엄숙한 풍모를 보인다. 도산서당터를 찾은 후 퇴계는 그 연유를 이런 문장으로 남겼다. "처음에 내가 퇴계 위에 자리를 잡고, 시내 옆에 두어 칸 집을 얽어 짓고, 책을 간직하고 옹졸한 성품을 기르는 처소로 삼으려 했더니, 벌써 세 번이나 그 자리를 옮겼으나 번번이 비바람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시내 위는 너무 한적하여 가슴을 넓히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옮기기로 작정하고 산 남쪽에 땅을 얻었던 것이다." 도산서원을 떠올리며 아쉬워하는 고미술 학자들이 있다. 1960년대 말 대대적 보수공사로 인해 진입로가 바뀌며 정취와 건물

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산서원의 단위 건물은 여전히 가치가 높다. 서원 내 나무들이 지닌 상징성과 절제의 미학은 유교의 함축적 철학관을 잘 보여준다. 교육 시설 강당이 앞에, 제사 시설인 사당이 뒤에 있는 전학후묘 형태는 후대 서원들의 모범이 되었다. 도산서원을 들른다면 건축만 둘러보지 말고, 퇴계를 따라 예던길을 꼭 걸어보자. 안동대학교 건축과 정연상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건축이 들어서기 전 원석과 같은 공간'이다. 낙동강과 청량산이 함께 이루는 녹색 풍경과 퇴계 선생을 기리는 시비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Sightseeing

도산서원 둘러볼 만한 포인트

옥진각
퇴계 선생의 유물 전시관으로, 생전에 쓰던 베개와 자리 등을 비롯한 많은 유물을 전시해놓았다. 매화벼루, 옥서진, 서궤 등 문방구와 서적 자료에서는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던 퇴계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전교당
보물 제 210호. 유생들의 자기 수양과 자제들의 교육을 하는 강당으로서, 앞 마당 양옆에는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자리한다. 화려한 팔작지붕과 간소한 건축 구조의 대조가 인상 깊다. 전교당에 걸린 도산서원의 현판 글씨는 명필 한석봉의 작품이다.

도산서당 현판
지금은 도산서원의 존재감 때문에 엄숙한 어감이 생겼지만, 도산은 옛날 이곳에 옹기 굽는 가마가 있었다 해서 생긴 지명이다. 도산서당의 귀엽고 소박한 현판은 지명의 옛 유래를 떠올리게 한다. 편안하고 쉽게 쓴 해서와 정통성을 벗어난 전서의 느낌이 공존한다.

추천 식당

● **메밀꽃피면**
안동 시내에서 도산서원 올라가는 길, 농가맛집으로 선정된 식당을 들러보자. 퇴계의 산책로였던 예던길 근처 맹개마을에서 재배한 친환경 메밀로 국수를 뽑는다. **문의** 054-843-1253

● **264 청포도 와인**
시인 이육사의 대표작 '청포도'로부터 영감을 얻은 로컬 와이너리. 도산면에서 재배한 청수 품종으로 '광야', '절정', '꽃' 세 종류의 와인을 선보인다. **문의** 054-859-0264

병산서원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

주소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전화번호 054-858-5929
홈페이지
www.byeongsan.net

안동은 한옥과 떼어놓을 수 없는 도시다. 조선시대 건축의 걸작이자 '서원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는 병산서원 또한 안동에 있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그 유명세를 더했다. 낙동강의 하얀 모래밭과 하회마을 사이 위치한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다. 선조 8년 서애 류성룡이 지금의 풍산읍에 있던 풍악서당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 병산서원의 첫 모습이다. 류성룡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정치가이며 유학자로, 1607년 타계한 뒤 1614년에 그를 따르던 제자와 유생들이 이곳에 위관을 모시는 사당을 세웠다. 이로써 학문을 연구하는 강학 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을 모두 갖춘 정식 서원이 되었으며, 철종 14년에 '병산'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도 헐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은 47개 서원과 사당 중 하나였을 정도로 그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완성도가 높다. 입교당, 만대루 등 개별 건물들의 예술적 완성도도 찬찬히 살펴봐야겠지만, 병산서원에서 무엇보다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입교당에서 바라보는 병산과 낙동강, 백일홍의

경치다. 만대루 지붕 위 시원하게 흐르는 병산의 능선, 기둥과 기둥 사이 아득하게 보이는 강의 녹색 수면 등 병산서원의 건축은 그 자체로 테두리 없는 액자가 되어 서원을 둘러싼 자연을 가두고 돋보이게 한다. 그러니 병산서원 입교당 마루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일은 그토록 수려한 자연의 관람객이 되는 일이다. 사계절 언제 찾아도 병산서원에서의 시간은 아름답고 넉넉한 풍경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Sightseeing

병산서원 둘러볼 만한 포인트

만대루

학생들이 연회를 열거나 강의를 듣던 복합 공간으로, 팔작기와집에 홑처마로 된 이 웅장한 건물은 인공적인 서원 건축과 자연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기둥 사이로 보이는 낙동강과 병산은 마치 7폭 병풍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만대'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백제성루'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 "푸른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늦을 녘 마주 대할만 하고, 흰 바위 골짜기는 여럿 모여 그윽히 즐기기 좋구나." 2020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2104호)로 지정되었다.

입교당

서원의 가장 핵심적인 건물인 강당이다.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며, 서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기와집으로 가구는 5량(樑)이다. 양쪽 방에는 온돌을 들이고 중앙의 강학당은 3칸의 대청으로 개방하였다. 툇마루가 마련된 명성재에는 서원의 원장이 기거했으며, 서쪽의 경의재는 이른바 교무실에 해당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추천 식당

● **겸암정사**

하회마을 부용대 숲 속에 들어선 겸암정사는 서애 류성룡의 형, 겸암 류운용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치던 서당이었다. 관리인이 고택에 거주하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운치 가득한 쉼과 음료를 제공한다. 대추차, 매실차, 미숫가루, 식혜 등을 맛볼 수 있다. **문의** 010-6689-0988

● **거창갈비 도청점**

안동갈빗골의 오랜 터줏대감 거창갈비의 2호점으로, 경상북도청 인근에 위치해 하회마을과 가깝다. 갈비를 3인분 이상 주문하면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온다. **문의** 054-843-0099

봉정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극락전

주소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번호 054-853-4181
홈페이지 bongjeongsa.org

봉정사는 그 역사적 가치에 있어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찰들 중 하나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고찰로서 문무왕 12년 의상대사의 제자 능인스님이 창건했다. 규모가 장대하진 않지만, 산사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으며 현존하는 것 중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극락전은 국보 제 15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 또한 국보 311호로 지정될 정도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 단청 없이 낡은 빛을 드러내는 목조는 우람한 대웅전에서 백미를 이룬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주문부터 만세루까지 잘 다듬은 소나무의 조형미도 빼어나다. 초록이 무성한 여름부터 절 안의 거목들이 붉게 물드는 가을까지 봉정사 숲의 풍경은 그 자체로 여행의 목적이 될 만 하다.

Sightseeing

봉정사 둘러볼 만한 포인트

극락전
국보 제 15호.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 건축 중 최고의 건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 주심포 건물로 고려시대의 건물이지만, 전대인 통일신라시대의 건축 양식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주목 받는다. 목재를 층층이 쌓은 형태가 우리 건축의 구조미를 잘 보여준다.

대웅전
국보 제 311호. 현존하는 다포계 건물로는 가장 오래되었다.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을 갖췄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인데, 밖으로 뻗친 재료의 꾸밈없는 모양이 고려말 · 조선초 건축 양식을 잘 갖추고 있고 앞쪽에 쪽마루를 설치한 것이 특이하다.

추천 식당

● **그녀의 홈카페**
봉정사 가는 길. 자연 속 하얀 단층 건물이 느낌표처럼 있는 그녀의 홈카페. 가게 이름처럼 개인적이고 소탈한 취향이 곳곳에 스며있는 카페에서 봄에는 생딸기 음료, 여름에는 수제 팥빙수와 한라봉 빙수, 가을에는 생과일 수제케이크, 겨울에는 시그니처인 '안동시생강리' 로 만든 생강음료를 즐겨보자. **문의** 010-9911-0621

● **황토방 묵집**
안동 현지인들이 더욱 좋아하는 맛집. 다소 거친 외관에 문득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소박한 메뉴와 푸근한 맛이 금방 마음을 사로잡는다. 묵밥, 토종닭, 손두부, 닭백숙 등을 판매한다. **문의** 054-841-8844

만휴정

깊은 계곡 속 그림 같은 정자

주소 안동시 길안면 묵계하리길 42
전화번호 054-856-3013

반석 위로 쏟아지는 폭포 옆 기슭 아담하게 자리한 정자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등장한 이후 명소가 된 이곳은 보백당 김계행 공이 지었던 정자다. 보백당 김계행이 71세가 되어서야 지었는데, 김계행은 청백리로 이름나 이조참판에 왕의 잘못을 간하는 대사간까지 올라갔지만 잇달아 권력 다툼에 연루되어 옥살이까지 하는 고초를 겪은 후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정자의 이름도 늦은 쉼이라는 뜻의 만휴(晩休)다. 폭포 높은 곳 바위에 새긴 글씨도 '내 집에는 보물이 없고 보물이라면 오직 청렴뿐'이라는 뜻이다. 그 말처럼 만휴정은 소박한 풍치와 아름다움으로 그윽하다. 검은 기와 지붕, 서까래와 기둥들은 단청을 하지 않아 제 색으로 늙었다. 정자로 가려면 좁고 난간 없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드라마 방영 후 이 외나무다리가 전국적인 포토스팟이 되었다.

Sightseeing

만휴정 둘러볼 만한 포인트

묵계서원
만휴정까지 갔다면 묵계서원도 함께 둘러보자. 만휴정으로 들어가는 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이 서원은 구성이 간소하지만, 서원 주위를 둘러싼 소나무 숲과 한가로운 정취가 매력적이다.

추천 식당

● **말콥버거**
안동 시내에서 만휴정까지 거리는 자동차로 30~40분 정도다. 외진 곳에 위치해 가까운 식당을 찾기 어렵다. 시내의 이름난 수제 버거집 말콥버거에서 햄버거를 테이크아웃해 가자. **주소** 안동시 영가로 5

● **맘모스 제과**
만휴정까지 드라이브하는 동안 맘모스 제과의 크림치즈빵을 간식으로 즐겨봐도 좋겠다. 1974년 개업한 안동 대표 베이커리로, 크림치즈빵은 하루에만 5000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 높다. **문의** 054-857-6000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전시관

안동은 유서 깊은 학자와 문인의 도시이자 우리 전통 문화 유산의 보고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전시관 세 곳을 소개한다.

01 안동시립민속박물관

1992년 6월 개관한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관혼상제, 전통놀이 등 생활 풍습에 관한 자료를 다채롭게 전시한다. 유교문화를 전시하는 옥내 박물관과 안동댐 수몰 지역에 있던 고가옥과 문화재 등을 전시하는 야외 박물관으로 나누어진다. 제1전시실에는 아기 점지부터 어린이 성장까지 이르는 서민들의 생활문화, 제2전시실에는 관례부터 제례까지 양반들의 생활문화가 전시되어 있 으며, 제3전시실에는 안동문화권의 민속놀이가 모형으로 연출되어 있다.

주소 안동시 민속촌길 13 **전화번호** 054-821-0649

02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 유물 없이 디지털 콘텐츠로만 채워진 국내 최초의 박물관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CT기술을 통해 과거의 전통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되고, 기존 박물관의 전시물, 설명 문안, 그림 등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내면의 가치관, 생활 양식, 원리를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다. 전통 민요와 상여소리, 구수한 안동 사투리를 들을 수 있는 '클릭 옛소리'와 도산서원, 태사묘, 하회마을 유물각의 유물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유물체험전', 도산서원의 장판각과 태사묘 유물 등에서 추출된 문양 등 130종의 목판 탁본을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는 '유물장판각', 하회탈춤을 배우고 직접 탈춤을 체험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하회탈춤 UCC' 등 다양한 쌍방향 체험을 통하여 안동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주소 안동시 서동문로 203 **전화번호** 054-843-7900

03 이육사문학관

2004년 7월 육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관된 이육사문학관은 육사의 고향인 도산면 원천리에 있다. 문학관 내부에는 육사의 친필 원고를 비롯하여 시집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육사문학관에서 500미터 정도 거리에는 육사 생가터가 있다. 건물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해 안동 시내 태화동으로 이건 되었고 현재 그 자리에는 청포도시비가 건립되어 있다. 1층에서는 육필 원고, 독립운동 자료, 시집, 사진, 독립운동 모습, 시 감상 시설물을 살펴볼 수 있고, 2층에는 영상실, 세미나실, 시상 전망대, 탁본 체험 코너를 마련했다.

주소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 **전화번호** 054-852-7337

안동
여행 정보

02

04

05

07

01 : 안동의 지형 Geography

안동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동쪽과 동북쪽에 태백산맥을 접하고, 북으로는 태백과 소백이 갈라지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안동 땅에 작은 산들이 오밀조밀 분포하는 한편 평야가 드문 이유가 여기 있다. 낙동강이 안동의 한복판을 유유하게 통과한다. 내륙 수운 교통의 요지로서 풍산과 안동 등지에 선착장이 있었다는 기록들도 남아 있다. 강의 오랜 침식 작용으로 이루어진 단애 또한 안동의 특징이다. 하회의 부용대나 마애동의 마애절벽 등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어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02 : 안동 대표 맛집 Restaurants

01 오고가게 청년몰

안동 중앙 신시장의 새로운 명물. 포목가게 골목 근처에 조성된 청년몰에는 청년 창업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식당과 상점 20여 곳이 들어서 있다. 수제 돈가스, 커피 로스터리, 수제 버거, 공방 등 다양한 업장이 모여 있는데, 앙버터 스콘 맛집 몽주아처럼 전국적 명성을 얻은 곳도 있다. 옛날식 떡볶이를 파는 옥야180, 형형색색의 마카롱으로 인기가 높은 오카롱 등도 젊은 여행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02 신세계찜닭

중앙 구시장 찜닭골목의 스타. 색깔은 조금 연하지만 풍미는 매콤하고 감칠맛으로 가득하다.주문 시 맵기 조절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메뉴에는 '중'과 '대'만 표기되어 있는데, '중'자만 시켜도 3~4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푸짐하다.

03 신라국밥, 돼지국밥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푸짐한 한 그릇이 놓인다. 맑은 국물 위 가득 올린 부추와 다대기, 부들부들 맛있게 삶은고기까지 그야말로 서민 음식의 클래식이다.

04 옥야식당, 소고기선지국

양지, 갈빗살, 소뼈 등 신선한 안동 한우를 큰 솥에 넣고 부글부글 끓여내는 풍경부터 독보적인 존재감이 있다. 메뉴는 단 하나, 8,000원짜리 소고기선지국이다. 큼직하게 썬 대파와 탱글탱글한 선지 사이로 다양한 쇠고기 부위가 푸짐하게 담겨 있다.

05 MARKET J

이탈리아 남부 스타일 그대로 화덕에서 구워낸 피자가 특히 유명한데, 향기로운 버섯을 가득 올린 버섯 피자, 살치살과 양송이, 트러플오일, 달걀을 올린 화이트 비스마르크 피자 등이 인기 메뉴다. 토마토의 감칠맛에 군침이 가득 고이는 한우 라자냐도 시도해 보자.

07 일직식당, 간고등어

50년 경력의 간잽이 이동삼 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아침 8시면 부지런히 문을 연다.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간고등어는 구이든, 조림이든 무엇을 시켜도 후회하지 않는다.

03 : 계절 따라 축제 따라 Festivals

01 봄 | 안동 벚꽃 축제
봄기운이 느껴질 즈음 낙동강을 따라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벚꽃길을 따라 먹거리장터, 공연, 체험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문화 축제.

02 여름 | 월영 야행
한여름 밤 월영교에서 열리는 열흘간의 축제. 푸드트럭과 월영장터, 체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발길을 기다린다.

03 가을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매년 다른 테마로 세계 각국의 탈과 탈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여행. 안동 탈춤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신명나는 마당이 펼쳐진다.

04 겨울 | 암산얼음축제
천혜의 자연 절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안동 암산의 겨울 축제. 정든 옛 고향 동리를 닮아 정겨운 암산의 얼음 빙벽을 보며 썰매타기, 팽이치기 빙어낚시 송어잡이 등을 즐길 수 있다.

04 : 안동 카페와 펍 Cafes and Pubs

01 태리커피
매일 새벽 직접 로스팅하는 신선한 원두로 유명한 로스터리 카페. '안동 최고의 커피'라는 찬사를 받으며 모든 커피 메뉴가 사랑받는 가운데, 특히 아인슈페너의 인기가 높다. 커피 외 메뉴들은 유기농 재료와 지역 농산물로 만들며, 생강, 오미자 역시 지역 농장에서 공급 받아 건강음료로 제공하고 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400년 이상의 왕버드나무 아래 데크에서 운치를 즐길 수 있다.

02 카페별
안동 뉴트로 카페의 원조 격. 하얀 타일로 마감한 2층 외관부터 멋지다. 안동소주와 앤티크 소품이 함께 놓인 입구 옆의 진열장이 발길을 맞는 한편 정원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2층 공간은 유럽 저택의 응접실처럼 아기자기하고 멋지다.

03 옥정펍
나무 패널 위 맥주 이름을 정갈하게 써 붙인 입구의 맥주 탭부터 근사하다. 복고풍의 알루미늄 소반부터 하회탈로 표시한 남녀 화장실 표시까지, 현대적 감각과 전통 문화가 감각적으로 만났다. 해가 완전히 진 후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

05 : 안동의 숙소 Acommodation

안동은 한옥 호텔의 메카다. 옛 양반의 고택부터 시내 곳곳에 남은 종택까지 튼튼하고 아름답게 보존된 한옥들이 현대적인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났다. 안동 한옥 호텔의 양대 산맥은 락고재와 구름에 리조트다. 특급호텔 못지 않은 안동의 매력은 종가에서 운영하는 고택스테이. 고택마다 가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안동의 숙소들 중 각별하게 소개할 만한 다섯 곳을 골랐다.

01

02

03

03

04

01 인문정신연수원

인문정신연수원은 한국국학진흥원 내 독립적 연수기관으로 300명 규모의 호텔형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호텔식 숙소가 부족한 안동에서 빛을 발한다.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예끼마을, 도산서원 등 도산권 연계 관광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했다.

02 칠계재

서후면 금계리에 위치한 칠계재는 종가의 가품과 유교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칠계재 장세규의 종택인데, 후손들이 가옥을 제 몸같이 아낀 덕분에 고택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한적한 주변 환경이 힐링에 더할 나위 없지만 안동 시내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고택이라 여정이 짧다면 서울로 돌아가는 마지막 하루 묵는 것이 좋다.

03 씨엠 파크 호텔

2018년 9월 오픈한 신상 호텔이다. 안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서구식 호텔.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하회마을과 안동세계탈박물관 5분거리로 편리한 접근성이 큰 매력이다. 인피니티풀도 있다.

04 펜션 연/연플러스

구 안동역, 태사길, 원도심에 두루 가까운 깔끔하고 근사한 한옥 펜션. 한옥 두 채를 통째로 빌릴 수 있어서 대가족 여행이나 MT 등 인원이 많은 여행에서 더욱 빛나는 선택이 될 펜션이다. 마당에 BBQ 시설이 있다.

안동 언택트 힐링 여행지 20선

01: HEALING
가족끼리 힐링

'가족끼리 머물고 싶은데, 안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청정 자연 품 속 찐! 힐링!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관광지

1. 구름에리조트
2. 계명산 자연휴양림
3.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4.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5. 군자마을

01

02

03

04

05

02: LOVE
합시다! 러브

영화 속 러브스토리, 부러워만 할 건가요? 썸타기 그만하고 영화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핫 플레이스. 스토리가 있어 더욱 낭만적인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합시다!러브'

관광지

6. 월영교
7. 만휴정
8. 고산정
9. 낙강물길공원

06

07

08

09

03 : HEALTH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헬스

고즈넉한 풍경을 따라 걷노라면 고단했던 몸과 마음이 어느새 눈 녹듯 사르르 치유되고, 나도 모르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단단한 각오가 다져집니다.

관광지 10 선비순례길 11 호반나들이길 12 병산~하회마을길

10

11

12

04 : FUN
'뻔'한 곳 말고 '펀'한 곳

'다 거기서 거기지' 별 기대 없이 왔다가 '다음에 또' 손가락 걸며 약속하게 되는 남녀노소 오감만족 알짜배기 여행지. '뻔'하지 않고 색다른 즐거움이 '펀펀'한 안동!

관광지 13 유교랜드(놀팍) 14 임하호수상레저타운 15 낙동강 음악분수

13

14

15

05 : FEEL
특허청이 인정한 '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특허청 등록 브랜드네임이 입증하는 짙은 전통문화의 향.
5천년 유서 깊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고품격 여행을 원한다면 안동으로 오십시오.

관광지 16 도산서원 17 임청각 18 이육사문화관 19 권정생어린이문학관 20 소천음악관

16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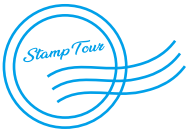
19

20

안동 여행, 이렇게 즐겨 보세요!

01 : 스탬프를 받으면 선물이 쏟아지는 안동 스탬프 투어

Stamp Tour



안동 스탬프 투어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혹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안동 스탬프 투어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 안동의 관광 명소(총 20곳)를 방문합니다 ⇨ 관광지와 50m 내로 가까워지면 설치된 앱에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5개 이상의 스탬프를 모으고 경품 수령 장소(하회마을, 도산 서원, 봉정사, 월영교 안내소 중 1개소)에서 경품을 획득합니다. 문의처: 054-840-6398

경품 수령 방법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시어 안내원에게 경품 수령 코드를 제시하시고 경품을 수령합니다. (경품 수령 시간은 10:00~17:00 시까지이며 관광안내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경품 안내

모바일스탬프 5개마다 엄마까투리 키링 증정(경품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음)

스탬프 투어 대표 관광지 20곳

01 안동 전통 문화 콘텐츠 박물관	02 임청각	03 월영교	04 낙강물길공원	05 안동 민속박물관
06 유교랜드	07 전통리조트 구름에	08 태사묘	09 찜닭골목	10 하회마을
11 병산서원	12 봉정사	13 안동 이천동석불상	14 이육사문학관	15 선성현 문화단지
16 도산서원	17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18 고산정	19 안동포타운	20 만휴정

02 : 영국 왕실의 안동 여행을 따라가보다, 로열 웨이

Royal Way

로열 웨이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문 20주년을 기념하여 1999년 여왕 방문시 의미있었던 일정을 정리한 "The Royal Way" 관광 코스로, 안동의 중요한 관광 명소들을 포함합니다.

로열 웨이 코스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의 충효당을 출발해서 경북 최대의 농산물 집하장인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과 세계문화유산 봉정사를 연결하는 코스로 전체 32km구간. 많은 종가집과 역사적 문화가치를 가진 고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이어 2019년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가 다시 방문하여 한영 우호의 상징적인 장소들이 되었습니다.

Course

15km 17km

하회마을 — 농수산물 도매시장 — 봉정사

HEALING
ANDONG
안동

발행처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관광진흥과

안동시청
www.andong.go.kr

안동관광정보센터
www.tourandong.com

사이버 안동장터
www.andongjang.com

발행일
2021년 12월

게재된 사진과 글은 사전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체의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